

이렇게 들었다

인권 "온갖 존재 실제없고 평등할뿐"

미결수에 대해 법정에서 사복을 입혔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회 각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인권침해 정도가 시시각각인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 해부터 권위 범위와 실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됐던 국민인권위원회도 인사와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완전 독립 시킨 특수 독립법인으로 설치키로 함으로써 새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인권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개인의 존엄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최소한의 윤리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철상천하 유이독존'을 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에 대해서도 그 존엄성을 말씀하셨다. 경전에 나타난 인간존중사상을 살펴본다.

(편지자 주)

■ 온갖 존재는 실제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락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개장(蓋障)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없이 여기와 갓나에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사쇄호경>

■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 온갖 사물은 특질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실체가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생

기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본래 청정한 까닭에 평등하다. 희론(戲論)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유와 무가 불이(不二)인 까닭에 평등하다. <화엄경>

■ 온갖 중생도 다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온갖 사물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성자들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미륵에 이르러도 진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마경>

■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금수·벌레·천인(天人)중 살려 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 때에는 언제나 가없이 여겨 뜻대로 먹여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大慈)가 없다고 말하지 말할지언정 우바리를 천하다고는 말하지 말라. 그가 비록 천인 계급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호법(護法)·지율(持律)에는 제1인자이니, 그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종묘과(三種妙果)를 얻게 하는 사람이니 분명하다. 그러므로 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느니라.

■ 갖가지 중생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미래가 다하도록 삼세에 평등하며 시방에 통달함을 '다함이 없는 행'이라고 하나니라. 가지가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의 바라밀다인 것을 '존중행'이라고 하나니라. <능엄경>

■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써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보호하라.

또 마땅히 법으로써 모든 예쁜 여자를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써 보호해 살피라. 그리고 모든 왕자 대신 모든 벗 모든 관리 및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라. 밑으로는 금수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피라. <전륜성왕수행경>

불교식 관혼상제 보급을



서진 서울 서원사 주지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화장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 중 불교신자의 화장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발표가 있었다.

불교의 전통적인 장묘 형태는 유골을 모아 탑을 짓거나 부도를 만드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육신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가 업에 의한 연(緣)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뿐 본래의 지아는 아니기에 인연이 다하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에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 불교인은 가르침에도 없는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것일까? 제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불교신도의 관혼상제에 대한 교단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

사람을 찾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는 불교의 본래 목적보다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얻는 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무척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교 본연의 임무를 잊고 일반인들의 기복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불교는 불교신자들의 관혼상제에 너무 무관심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함은 그 종교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며, 의식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신도들에 대한 생활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혼상제 의식을 타종교의 의식에 맞추어 행하였기에 신앙이 대를 잇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의 한국불교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독자의 소리

2월25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시작된 뮤지컬 '장보고의 꿈' 공연장. 공연 전에 배우들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공연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장보고' 역을 맡은 임동진씨에서부터 '벼들' 역인 우상민씨 등 출연진이 연습장소에서 서로 집사님 장로님 등으로 부르는 특색있는 개신교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 개인의 종교가 극중 인물과 다른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배우의 종교가 극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문제다. 임동진씨는 "극 중에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리'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부처님을 하늘로 바꿨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인들이 와서 이 노래를 듣고 찬송가 같아 침착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장보고는 독실한 불자였다. 장보고가 살았던 신라의

국교도 불교요, 신라인들의 정신 역시 불법에 다름아니다. 자신이 머무르는 곳마다 법화원을 세우고 불법의 향기에 젖어 살았던 장보고가 그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에서 배우의 종교 때문에 대본이 수정되고 노래가 바뀌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대사 하나 하나에 엄메이는 배우들이 장보고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뮤지컬 장보고 공연은 이미 95년에 시작됐다. 그 때 불교계에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 이번 국내공연에서는 불교계가 나서서 후원도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 여태까지 불교계는 너무도 문화사업에 무관심했다. 올해는 정부가 '문화관광의 진흥'을 국정지표로 삼을 정도로 문화경쟁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불교계에서도 이에 발맞춰 불교문화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준비되는 모든 불교 관련 공연 전시 등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번 뮤지컬 공연처럼 타종교인의 무지로 불교의 본모습이 왜곡되어 표현해서는 안된다. (jygang@buddhapia.com)

장지연 (취재2부 기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독자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십시오.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전자메일: aem@hail.net 34713

신행단체 사회 변화 읽어야

불교신행단체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힘든 성과를 이겨왔다. 8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재가불자 신행운동은 많은 불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사회변화속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기 위해서는 각 단체마다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고 사중사원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실제로 불교단체들이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교계의 울골은 주장을 해온 것은 달라진 점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불교신행단체들도 자체적인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제도권의 불합리한 점까지 지적하여 고치고 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반자로 국정현안에 참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환경 복지 인권 윤리 등 경제발전으로 밀려나 부인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은 불교계가 그 사상적 이론적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천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불교신행단체들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한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변화를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불교신행단체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불교신행단체가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부터 스스로 실천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때이다.

개인의 목소리는 적지만 단체의 합성은 더 크게 멀리 퍼져나간다. 단체의 본연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달란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한득 대구불교신학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법보시에 감사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매주 만나보는 즐거움을 주신 현대불교신문사와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해주시는 분들께 삼배올리는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지나온 날들이 집이 되어 기억 속에 아른거리고, 번뇌의 집을 쌓으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체의 현상계가 풀릴의 이슬이요, 허망한 무명의 그림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보며 비로소 헛된 인연의 물거품을 지워버리고 참마음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부처님의 대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참신하고 싱그러운 내용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인력의 보살행에 이곳의 많은 불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중환(춘천교도소 불교회장)

권은주(경남 진주)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4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통신40명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3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2. 학교연혁

- 1989.7.3 학교설립준고
-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8 본교 학생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 91.3 연료부 주권, 야간 2년제 개설
- 91.8 본교 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 91.8 제1회 졸업생 배출
- 92.7 국가인정 교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8 본교 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 94.11 본교 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 95.11 본교 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 96.11 본교 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물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물 거처)
- 중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3월 12일 까지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 ~ 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법안명상 사범학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를 선도할 지도자그림에 일원이 될 분을 찾습니다.

- 심신정화하여 사회정화 할 수 있는 지도사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함.
- 각형원만하여 대중을 자유, 평등, 화합의 세계로 인도할 법사를 양성코자함
- 전법교과하여 이웃을 돕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며 진실정도인 정화세계를 이룩할 인재 양성을 코자함.

1. 교과 및 모집인원 : 법안명상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기공사범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만국역리학과 30명 (2년제 통신·법사원위탁교육)
불교학과 30명 (2년제 통신·법사원위탁교육)
2. 입학자격 : 만18세이상 학력제한 없음 (단 불교학과는 고졸이상임)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9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 불교학과는 2월25일까지임)
4. 전형방법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전형료 ₩25,000 · 원서대 ₩5,000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 1부, 여권사진 8매, (최종학력증명서1부 불교학과만 해당됨) (단 불교학과는 통신교육이므로서 강의테이프,우송료포함) 속성별도
6. 등록금 : 학기당 35만원(입학 동계, 하계 소정교육사 속성포함)
7. 입학금 : 10만원

※ 특전 : 성적 우수자 장학금지급, 사범및포교사자격증, 수행평가포수, 수계, 불대학원입학추천 우수졸업생은 본교사범 및 조교사로 임명함

※ 기타 : 기숙사원비 - 선착순 0명 (월15만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음, 우편접수가가능 (당일소인유요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부로 문의 바랍니다

법안명상 사범학교 정화사 혜명선원

사단법인 법사원불교대학 조치원불교

339-830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전화 : 0415)867-4000 팩스 : 0415)867-4001